

사상의학과 형상의학의 유형분류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장아름 · 전수형 · 박세정 · 이현미 · 김규곤* · 이용태** · 지규용*** · 이인선**** · 김종원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동의대학교 정보통계학과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yungsang Classification and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is

A-Reum Jang, Soo-Hyung Jeon, Se-Jung Park, Hyun-Mi Lee,
Kyu-Kon Kim*, Yong-Tae Lee**, Gyu-Yong Ji***, In-Sun Lee****, Jong-Won Kim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
*Dept. of Information Statistics, DongEui Univ.,
Dept. of Physiology, *Dept. of Pathology, ****Dept. of OB&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

1.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Hyungsang medicine.

2. Methods

Four hundred and thirty applicants are involved in this study. They are divided into Sasang Constitution and Hyungsang Classification

3. Results and Conclusions

There are significances between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is and Hyungsang Classification. There are significantly more Bangkwang-body, Gi-kwa, Taeyang-hyung, Yangmyung-hyung in Taeyangin and Bangkwang-body, Jung-kwa, Soyang-hyung, Yangmyung-hyung in Soyangin. There are significantly more Dam-body, Gi-kwa, Taeyang-hyung, Yangmyung-hyung in Taeumin and Bangkwang-body, Gi-kwa, Taeyang-hyung, Yangmyung-hyung in Soeumin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 Hyungsang, Classification.

• 접수일 2010년 05월 06일; 심사일 2010년 05월 07일;
승인일 2010년 05월 26일

• 교신저자 : 김종원
부산시 진구 양정2동 동의의료원 사상체질과
Tel : +82-51-850-8640 Fax : +82-51-867-5182
E-mail : jwonkim@deu.ac.kr

* 본 연구는 2010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 緒 論

東武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여 인체 내부 臟理의 상대적 편차를 근거로 인간의 체질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구분하였다. 사상인은 각 체질에 따라 생리 및 병리에 차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섭생법 및 치료법에서도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四象醫學의 임상적 적용에서는 體質診斷이 우선시 되는데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에서 제시한 體質診斷의 요점은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病證藥理 4가지이다.

이렇게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病證藥理를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체질을 진단하는 것이 體質診斷의 고전적인 방법이며 이러한 방법은 그 사람이 가진 병증에만 관심을 두던 기존의 辨證 방법들과는 달리 사람을 알고 병을 아는 그리고 사람에 따른 질병의 특성을 아는 全人的 접근의 방법을 이룬 것이다.¹

결국 병에 의해 유발된 증상에 대한 관심의 틀에서 한차원 더 나아가 “인간을 알고 병을 알자”는 것이 李濟馬가 새로이 제기한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

이러한 李濟馬의 사고와 유사하게 병의 증상보다 인체에 내재된 본질에 따라 치료를 해야한다는 인식을 한의학 고유의 이론인 形象醫學에서 찾아볼 수 있다.

形象醫學이란 自然人的 形象을 보고 그 속에 내재된 法則을 揭示하여 누구나 認知할 수 있도록 글로 옮겨서 펼쳐보인 것이다. 즉 形象관찰을 위주로 하여 人體의 精神氣血·五臟六腑·外形·六氣와 雜病상태를 바르게 파악하고 病理와 治法을 구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東醫寶鑑』 『身形臟腑圖』에서 사람의 形色과 臟腑가 다음에 따라 治法이 다음을 주장하고 있듯이 사람의 形象이 다르다는 것은 인체에 내재된 본질과 환경에 대한 적응방식이 다르므로 治法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²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形象醫學과 四象醫學은 같은 증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體質에 따라 혹은 그 사람의 形象에 따라 治法이 달라지게 된다. 즉

병이 나타난 증상보다 그 사람의 내재된 본질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할 수 있다. 또한 진단의 요점이 되는 體質診斷과 形象分類에 있어서는 외형으로 드러나는 구조적인 특징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진단과 형상진단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四象體質 설문지를 통한 體質診斷과 大韓形象醫學會 소속의 형상전문가에 의한 形象分類의 진단결과를 통계분석 해본 결과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논문을 쓰게 되었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 10월 13일부터 2009년 10월 29일까지 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된 4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분포는 남자 278명, 여자 152명이다.

2. 연구방법

1) 사상체질 진단방법

金¹⁾과 李²⁾가 2004년 한국한의학 연구원 일반위탁 연구사업에 의해 진행된 “사상체질진단 설문프로그램1의 개발에 관한연구”를 통하여 사상체질진단표준인 연구를 거쳐 제작한 의사용설문지와 환자용 설문지³중 환자용 설문지를 근거로 하였다. 피험자로 하여금 환자용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金¹⁾등이 개발한 웹기반 온라인 한방체질진단시스템인 “온라인 사상체질진단시스템(On Line-SSCQ<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⁴을 이용하여 체질을 진단하였다.

2) 형상분류방법

동의의료원 10층 사상체질진단실에서 RS-400FL 형상진단기(Figure 1)로 촬영한 피험자의 안면을 대한형상의학회(www.hyungsang.or.kr)에 소속된 형상전문가 5명에게 보내어 형상진단전문가가 형상분류를 진단하였다.

1) 동의대학교 사상체질과 김종원

2) 경희대학교 사상체질과 이의주



Figure 1. RS-400FL

(1) 촬영방법

엠엑스알커뮤니케이션즈의 RS-400FL 형상진단기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피험자는 화장을 지우고 안경을 벗고 촬영하였다.

(2) 형상분류

형상의학에서는 인신의 관찰방법에 있어서 形態論의 측면에서 精·氣·神·血의 四科로, 性情論의 측면에서 魚·鳥·走·甲의 四類로, 氣勢論 즉 기혈다소에 따른 발달과 경락적인 측면에서 六經形(태양형·양명형·소양형·태음형·소음형·厥음형)으로, 清濁論의 측면에서 陰體(膀胱體)와 陽體(膽體)로 분류 관찰하였다.⁵

한의학에서 六府를 칭할 때 쓰는 담 방광이라는 용어를 형상분류에서 설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사람은 形氣盛衰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氣盛形衰하여 動적인 사람과 形盛氣衰하여 靜적인 사람으로 이분화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형상에 적합한 명칭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氣盛形衰한 유형을 담체라 하고 形盛氣衰한 유형을 방광체라고 명명하였다. 인체의 운행은 주로 기혈의 운행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경락은 기혈의 운행통로이며, 경

락의 명칭 속에는 한의학의 기본이론인 陰陽五行, 五運六氣, 臟象, 氣血상태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음양오행에 따른 명칭보다 경락에 입각한 용어가 더 총체적이며, 실질적인 용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十二經絡 중에서 사람은 땅을 따라 변함으로 足六經이 더 중요하고, 足六經 중에서도 인체의 많은 부위를 점유하고 있는 足三陽經이 대표성이 있으며, 이중에서 多氣少血과 多血少氣를 만족시키는 것은 족소양담경과 족태양방광경뿐이므로, 담은 담경에서 방광은 방광경에서 유추한 용어라고 본다. 따라서 장부경락에서 유추한 담 방광용어는 陰陽虛盛, 形氣盛衰 氣血多少의 개념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족소양담경은 측면을 유추함으로 측면의 경근과 경피가 발달하고, 족태양방광경은 후면을 유추하기 때문에 후면의 경근과 경피가 발달하여 각각 얼굴의 측면과 전면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형상에 담 방광이란 용어를 설정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⁶

본 연구에서는 안면의 형태를 살펴 형상을 분류하는 연구이므로, 성정의 측면에서 분류하는 魚·鳥·走·甲의 四類의 분류는 배제하였고, 二體(담·방광체), 四科(精·氣·神·血科), 六經形(태양형·양명형·소양형·태음형·소음형·厥음형)의 형상 분류를 시행하였다.

(3) 형상진단의 기준

- ① 담 방광체 - 얼굴의 상하좌우의 길이를 비교하여 분류하였다.
 - 담체 : 얼굴이 정면보다 측면이 넓다.
 - 방광체 : 얼굴이 측면보다 전면부가 넓다.⁷
- ② 정신기혈과 - 얼굴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였다.
 - 정과 : 얼굴의 형태가 동그랗다.
 - 신과 : 얼굴의 형태가 역삼각형으로 턱이 뾰족한 사람이 많다.
 - 기과 : 얼굴의 형태가 네모 혹은 각진 꼴이다.
 - 혈과 : 얼굴의 형태가 가름한 계란형이다.⁸
- ③ 태양 소양 태음 소음형의 경우 鼻(準頭)와 目(눈초리)의 승강에 따라 분류하고 양명 厥음형의 경우 안면의 돌출과 함몰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Dam-Bangkwang-body with Sasang Constitution

	Taeyangin	Soyangin	Taeumin	Soeumin	Total	chi-square(p-value)
Dam	8 (47.06)	29 (36.71)	134 (62.91)	54 (44.63)	225	20.354 (p=.0001)
Bangkwang	9 (52.94)	50 (63.29)	79 (37.09)	67 (55.37)	205	
Total	17	79	213	121	430	

- 태양형 : 눈꼬리가 올라가고 코도 올라간 형상이다.
- 소양형 : 눈꼬리가 내려오고 코가 올라간 형상이다.
- 태음형 : 눈꼬리가 내려오고 코도 내려온 형상이다.
- 소음형 : 눈꼬리가 올라가고 코가 내려온 형상이다.
- 양명형 : 안면이 돌출하고 눈두덩과 입술이 두툽한 형상이다.
- 궤음형 : 안면이 함몰하고 눈두덩이 함몰한 형상이다.⁹

(4) 형상진단의 과정

- ① 형상전문가는 동의의료원 사상체질과로부터 피험자의 안면영상과 판정표를 받고 연구에 참여하고, 모든 형상전문가에게는 다른 형상전문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 ② 형상진단에 대한 평가자 5명의 평가의견이 다를 때는 가장 많은 분류범주로 판정하였다.
- ③ 형상전문가의 평가의견이 동일할 때(2:2, 1명 판정 불가) 와 평가 결과 어느 누구도 판정을 하지 못한 경우 형상진단 프로그램의 결과값을 실패로 처리하였다.

3. 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AS 9.1 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사상체질과 형상분류와의 연관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다.

Ⅲ. 結 果

1. 四象人과 膽·膀胱體의 비교

사상체질과 膽·膀胱體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카이제곱(chi-square) 값은 20.3535이고 유의확률(p-value)이 0.0001로서 0.05보다 작으므로 사상체질과 膽·膀胱體간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태양인은 膀胱體 52.94%, 膽體 47.06%로 膀胱體의 비율이 높았고, 소양인은 膀胱體 63.29%, 膽體 36.71%로 膀胱體의 비율이 높았다. 태음인은 膽體 62.91%, 膀胱體 37.09%로 膽體의 비율이 높았으며, 소음인은 膀胱體 55.37%, 膽體 44.63%로 膀胱體의 비율이 높았다.

소양인 63.29%, 소음인 55.37%, 태양인 52.94%로 膀胱體의 비율이 높았고, 태음인의 경우 62.91%로 膽體의 비율이 높았다. (Table 1)

2. 四象人과 精·神·氣·血科의 비교

사상체질과 精·神·氣·血科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카이제곱(chi-square) 값은 20.2258이고 유의확률(p-value)은 0.0166으로서 0.05보다 작으므로 사상체질과 精·神·氣·血科간의 연관성이 있었다.

태양인은 氣科 38.46%, 精科 30.77%, 血科 23.08%, 神科 7.69%순으로 분포하였고, 소양인은 精科 36.99%, 氣科 30.14%, 血科 24.66%, 神科 8.22%순으로 분포하였다. 태음인은 氣科 45.03%, 血科 23.04%, 精科 16.75%, 神科 15.18% 순으로 분포하였으며, 소음인은 氣科 35.92%, 血科 31.07%, 精科 26.21%, 神科 6.8% 순으로 분포하였다.

태음인 45.0% 태양인 38.46% 소음인 35.92%로 氣科의 비율이 높았고 소양인은 36.99%로 精科의 비율

Table 2. Distribution of Jung-Sin-Gi-Hyul-kwa with Sasang Constitution

	Taeyanginjin	Soyangin	Taeumin	Soeumin	Total	chi-square(p-value)
Jung-kwa	4 (30.77)	27 (36.99)	32 (16.75)	27 (26.21)	90	20.226 (p=.00166)
Sin-kwa	1 (7.69)	6 (8.22)	29 (15.18)	7 (6.8)	43	
Gi-kwa	5 (38.46)	22 (30.14)	86 (45.03)	37 (35.92)	150	
Hyul-kwa	3 (23.08)	18 (24.66)	44 (23.04)	32 (31.07)	97	
Total	13	73	191	103	380	

Table 3. Distribution of Taeyang-Soyang-Taeum-Soeum-hyung with Sasang Constitution

	Taeyanginjin	Soyangin	Taeumin	Soeumin	Total	chi-square(p-value)
Taeyang-hyung	7 (50)	20 (29.41)	70 (37.04)	49 (45.79)	146	19.065 (p=.0246)
Soyang-hyung	5 (35.71)	35 (51.47)	62 (32.8)	33 (30.84)	135	
Taeum-hyung	0 (0)	10 (14.71)	22 (11.64)	12 (11.21)	44	
Soeum-hyung	2 (14.29)	3 (4.41)	35 (18.52)	13 (12.15)	53	
Total	14	68	189	107	378	

이 높았다. (Table 2)

3. 四象人과 六經形의 비교

1) 사상인과 太陽少陽太陰少陰形- 코와 눈의 형태로 구분

사상체질과 太陽·少陽·太陰·少陰形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카이제곱(chi-square) 값은 19.0653이고 유의확률(p-value)이 0.0246으로서 0.05보다 작으므로 사상체질과 太陽·少陽·太陰·少陰形 간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태양인은 太陽形 50%, 少陽形 35.71%, 少陰形 14.29%, 太陰形 0%순으로 분포하였고, 소양인은 少陽形 51.47%, 太陽形 29.41%, 太陰形 14.71%, 少陰形 4.41%순으로 분포하였다. 태음인은 太陽形 37.04%, 少陽形 32.8%, 少陰形 18.52%, 太陰形 11.64% 순으로 분포하였으며, 소음인은 太陽形

45.79%, 少陽形 30.84%, 少陰形 12.15%, 太陰形 11.21% 순으로 분포하였다.

태양인 50%, 소음인 45.79%, 태음인 37.04%으로 太陽形의 비율이 높았고 소양인은 51.47%로 少陽形의 비율이 높았다. (Table 3)

2) 사상인과 陽明厥陰形-얼굴의 돌출여부로 구분

사상체질과 陽明·厥陰形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카이제곱(chi-square) 값은 14.3086이고 유의확률(p-value)이 0.0025으로서 0.05보다 작으므로 사상체질과 陽明 厥陰形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다.

태양인은 양명형 82.35%, 궤음형 17.65%순으로 분포하였고, 소양인은 양명형 73.42%, 궤음형 26.58%순으로 분포하였다. 태음인은 양명형 55.87%, 궤음형 44.13%순으로 분포하였으며, 소음인은 양명형 71.07%, 궤음형 28.93%순으로 분포하였다.

Table 4. Distribution of Yangmyung-Kweoleum-hyung with Sasang Constitution

	Taeyangin	Soyangin	Taeumin	Soeumin	Total	chi-square(p-value)
Yangmyung-hyung	14 (82.35)	58 (73.42)	119 (55.87)	86 (71.07)	227	14.309 (p=.0025)
Kweoleum-hyung	3 (17.65)	21 (26.58)	94 (44.13)	35 (28.93)	153	
Total	17	79	213	121	430	

태양인 82.35%, 소양인 73.42%, 소음인 71.07%로 태음인 55.87%로 모두 양명형의 비율이 높았다. (Table 4.)

IV. 考 察

東武 李濟馬는 四象醫學을 창시하여 인간을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 네가지 체질로 나누어 각 체질별로 생리 병리 진단 치료 예방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상의학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체질진단이 전제가 되어야한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에서 體質診斷의 요점으로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病證藥理를 제시하였고 후가들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체질진단의 객관화를 위한 많은 연구를 하였다.

즉 각 體質別 특징을 중심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는 방법, 外形의 特徵을 計量化 한 방법, 生化學的 物質 分析法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설문지에 대한 보완적 연구, 유전자의 체질별 특성에 대한 연구, 각종 진단기를 이용하여 체질별 특성을 찾는 연구 등이 지속되고 있다.¹⁰⁾

이와 같이 체질진단의 기준과 진단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¹¹⁾ 등의 연구에 의하면 사상 체질의학 전문가 총 37명에게 사상체질 진단시 안면부 특징의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95%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안면전면부의 전체적인 형태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100%로 얼굴 전체의 형태는 체질진단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¹²⁾

이에 高¹³⁾ 등의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洪¹⁴⁾ 등의 『四象人 耳目鼻口의 形態學의 特徵 研究』, 『사상체질별 상안부의 형태학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등을 통해 체질별 안면과 耳目鼻口의 형

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다.

이와 더불어 文¹⁵⁾ 등의 『四象醫學에서의 形象醫學精神과 證治醫學에서의 形象醫學精神의 비교』에서는 사상의학과 증치의학에서 형상관에 대해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고 朴¹²⁾ 등의 『사상체질별 안면부 전체적 형태의 특징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상체질별 안면부의 형태와 동양의 관상학에서 얼굴을 관찰하는 방법의 하나인 十字相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던 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사상의학의 체질별 안면부의 형태학적 특징이 형상의학의 형상분류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었던 경우가 없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과 형상분류 사이의 유의성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체질진단은 환자용설문지를 통하여 온라인 사상체질진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형상의 분류는 대한형상의학회에 속한 형상전문가 5인이 형상진단기로 촬영한 대상자 430명의 안면 사진을 보고 진단하였다.

形象醫學에서 형상을 관찰하는 방법 가운데 얼굴 형태를 통해 형상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膽·膀胱體의 二體로 분류하는 경우와 精·神·氣·血科의 四科로 분류하는 경우 太陽·少陽·太陰·少陰·陽明·厥陰形의 六經形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走·鳥·魚·甲類의 四類로 분류하는 경우는 몸 전체의 형태와 성정을 관찰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1. 사상인과 膽·膀胱體 二體의 비교

形象醫學에서는 천지자연의晝夜에 따른 寒熱이 사람의 榮衛운행에 영향을 주어 肥瘦, 動靜 등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膽體와 膀胱體라고 한다.¹⁶

膽體는 마음이 불안조조하고 조급하고, 흥분을 잘 해서 動하기를 좋아하고 靜할 줄을 모른다.¹⁶ 陽盛陰虛하여 조열과 화가 많고 기육보다는 근골이 발달하며 黑瘦하며, 多氣少血하고 氣盛形衰한 병리유형을 가진다. 음혈이 허해지기 쉽고 조직의 소모로 인한 질환들이 많고, 변비가 많다.⁶

膀胱體는 몸이 무거워 동하기를 싫어한다.¹⁶ 陰盛陽虛하므로 한습과 수분이 많고 肌肉이 발달하고 肥白하며 多血少氣하고 形盛氣衰한 병리유형을 가진다. 운행이 안되거나 양기허로 인한 질환들이 많고, 遺尿가 많다.⁶

태양인은 膀胱體 52.94%, 膽體 47.06%로 膀胱體의 비율이 높았고, 소양인은 膀胱體 63.29%, 膽體 36.71%로 膀胱體의 비율이 높았다. 태음인은 膽體 62.91%, 膀胱體 37.09%로 膽體의 비율이 높았으며, 소음인은 膀胱體 55.37%, 膽體 44.63%로 膀胱體의 비율이 높았다.

태양인과 소음인은 膽·膀胱體의 비율이 비교적 큰 차이가 없었고 태음인은 膽體가, 소양인은 膀胱體의 비율이 높게 나왔다.

태양인과 소음인의 경우 얼굴이 상하로 발달한 사람과 좌우로 발달한 사람의 비율이 비슷한 편이며 태음인의 경우 담체가 많아 상하가 조금 발달한 길쭉한 형의 비율이 높다. 이는 고¹³ 등의 연구에서 태음인의 특징 중 全頭高(전체두상의 높이)의 측정치가 최대의 경향성을 나타낸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소양인의 경우에는 방광체가 많아 좌우가 발달한 조금 동그란 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고¹³ 등의 연구에서 소양인은 全頭高(전체두상의 높이)의 측정치가 대체로 최소치를 나타내었는데 全頭高의 측정치가 낮아 상대적으로 좌우로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체질에 따른 얼굴의 특징이 태음인은 길쭉하고 소양인은 약간 옆으로 통통하게 발달된 얼굴이고 태양인과 소음인은 상하좌우가 균형이 잡힌 형의 얼굴로도 볼 수도 있다.

또한 한 체질 속에서 담체와 방광체가 모두 존재하였으므로 이를 체질병 병증 진단에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유추해보았으며, 예를 들면 태음인의 경우에 있어서 담체에 해당하는 사람이 黑瘦하고, 便秘가 잘 발생하는 특징은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에서 “面色이 黃赤黑자는 多有燥證”이라는 내용과, 태음인 肝受熱裏熱病證에 있어서 便秘가 발생하는 증상과 유사성이 있어, 태음인중 담체에 해당하는 사람이 太陰人 肝受熱裏熱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태음인 중 방광체에 해당하는 사람이 肥白하고 寒濕과 수분이 많은 특징은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에서 “面色이 靑白者는 多無燥證”이라는 내용과, 태음인 胃脘受寒表寒病證에 있어서 한습으로 인한 설사가 발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은 유사성이 있어, 태음인 중 방광체에 해당하는 사람이 태음인 胃脘受寒表寒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으며, 추후에 체질별 병증과 담방광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四象인과 精·氣·神·血 四科의 비교

形象醫學에서는 人身의 사대근본요소인 精氣神血을 四象으로 분류하여 얼굴의 형태에 따라 精科, 氣科, 神科, 血科로 분류한다.⁶

精科는 대개 통통하게 살이 찌는 편이며 기색이 밝다. 성격이 명랑하고 낙천적이다. 또한 비위의 기능이 좋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눕기를 좋아한다.⁵ 정과는 정이 누설하기 쉬워 遺精, 失精, 奪精, 夢泄 등의 증이 많이 나타난다.⁶ 몸이 무겁고 잘 부으며 허리와 등이 아플때가 많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기가 쉽다. 영양분이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⁵

氣科는 마음씨는 아주 곱지만 고집이 세다. 명랑하고 활발한 면도 있지만 울음도 많다. 인간의 기본 감정에 무척 예민하여 신경성으로 인한 증상들이 잘 나타난다.⁴ 또한 항상 부지런히 일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또 그렇게 해서 기를 소모하고 순환시켜야 기과형의 사람들은 심신이 편안해진다. 그러므로 한가해 지거나 집에서만 쉬면 병이 잘 생긴다.¹⁷ 기과는 氣滯와 氣虛로 인한 병리유형이 많이 생기고 그로인해 氣滯, 短氣, 七氣, 少氣, 氣痛, 中氣, 氣逆, 氣鬱, 下氣,

氣不足 등의 병증이 잘 나타난다.¹⁸

神科는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성격이고 머리가 좋다. 신경이 예민하여 감정에 쉽게 마음이 상하여 병이 오는 수가 많다.⁵ 신이 발달해서 건강할 때는 지적능력이 뛰어나지만 건강에서 멀어지면 칠정이 잘 울결되어 담화에 의한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驚悸, 怔忡, 健忘, 癡癎, 癡狂, 不安焦燥 등 정신 신경증세의 질환이 잘 발생한다.¹⁸

血科는 순하고 자상한 경향이 있다. 매사에 꼼꼼하고 성실하며 다소간 소심한 기질도 가진다.¹⁷ 혈과는 혈을 포함하지 못하여 병이 온다. 따라서 혈이 부족한데서 오는 두통증상으로 고생하기가 쉽고 생리불순이 오기가 쉽다. 각종 출혈증상이 오기가 쉽고 어혈로 인한 병이 잘 발생한다.⁵

태양인은 氣科 38.46%, 精科 30.77%, 血科 23.08%, 神科 7.69% 순으로 분포하였는데, 태양인은 기과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동의수세보원 보편(普濟演說)』¹⁹에서 태양인의 얼굴형과 얼굴특징에 대하여 '方圓'이라 표현하여 모나고 둥글다는 표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타체질에 비교하여볼 때 精科의 비율도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四象診療保元』²⁰에서 태양인의 얼굴형에 대해 "광대뼈 나옴, 둥근편"이라는 표현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도 있다.

소양인은 精科 36.99%, 氣科 30.14%, 血科 24.66%, 神科 8.22% 순으로 분포하였는데, 소양인은 정과의 비율이 높았고 이는 『四象診療保元』²⁰에서 소양인의 얼굴형에 대해 "작고 둥근편"이라는 표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精科가 '명량하고 비위의 기능이 좋고 정이 누설하기 쉬워 유정 실정 탈정 몽설 등의 증이 많이 나타난다. 영양분이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수가 많다.'는 내용은 소양인의 성정 및 병증과 유사한 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과의 기본방중 하나인 육미지황원²¹의 경우 소양인의 처방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태음인은 氣科 45.03%, 血科 23.04%, 精科 16.75%, 神科 15.18% 순으로 분포하였는데, 태음인은 기과가 가장 많았고 이는 『사상의학(연변)』²²에서 태음인의 얼굴형에 대해 머리와 얼굴이 넓적하거나 하관이 넓다는 표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항상 부지런히 일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성격의 특징도 근면

한 태음인의 성격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태음인은 다른 체질과 비교해 볼 때 신과의 비율도 비교적 높았는데 경계 정충 등의 병증이 잘 온다는 경향이 태음인의 정충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소음인은 氣科 35.92%, 血科 31.07%, 精科 26.21%, 神科 6.8% 순으로 분포하였는데, 소음인은 기과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기과가 氣虛로 인한 병리가 많고 그로인한 氣不足이나 下氣 氣鬱 등의 병증이 많이 생기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氣科의 기본방 중 하나인 사군자탕은 소음인의 처방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음인은 혈과의 비율도 높은편이다. 이는 『동의수세보원 보편(普濟演說)』¹⁹에서 소음인의 얼굴형에 대해 '團圓(둥근모양)'으로 『사상의학(연변)』²²에서 '月형, 계란형, 타원형'이라 표현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혈과의 특징중 '여성스러운 성격이 많다. 매사에 꼼꼼하고 성실하며 다소간 소심한 기질도 가진다'는 성격은 소음인의 성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혈과의 병리가 '어혈로 인해 병이 잘 온다'는 등은 소음인에게 下焦蓄血병증이 잘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3. 사상인과 六經形의 비교

形象醫學에서는 경락의 발달상태나 기혈의 升降浮沈의 운동성 및 기혈다소의 차이에 따라 육경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육경형이 風寒暑濕燥火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排除할 수 있는가를 알려준다고 하여 六氣가 인체에 질병을 일으킬 때 痼疾화된 일정한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외감병일 경우 六經形의 발달된 경락을 따라 병이 들어오고, 장부질환도 발달된 경락을 통해 體表로 나타난다.⁹

1) 사상인과 太陽少陽太陰少陰形- 코와 눈의 형태로 구분

太陽形은 氣勢가 상승하는 형태이므로 이상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상을 추구한다는 말은 거꾸로 현실감이 부족하다는 것과 서로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헛된 망상을 잘하고 상상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太陽形은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술이나 음악같은 예술 방면에서

남다른 재능이 있다. 또한 太陽形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예민하고 섬세하며 감정의 변화가 다양하다. 太陽形은 足太陽膀胱經에 병이 유주하므로 방광병이 잘생겨서 遺尿症, 小便頻數의 증상이 잘 발생하고, 疝症으로 병이 잘 온다. 太陽形은 少氣多血하여 少氣하므로 상승력이 부족할 때 치법은 補氣升陽한다.⁹

少陽形은 코가 들리고 눈꼬리가 내려온 형상으로 集合하는 기세를 갖는다. 여자의 기본상이므로 여성적인 성격이 많다. 그러므로 마음이 여리고 세심하며 응집하는 기세이므로 뻗어나가는 힘이 부족하다. 반면에 소양상화에 속하므로 잘 빠치고 성을 잘 내기도 한다. 少陽形은 少陽病의 증상이 많이 발생하고 足少陽膽經에 병이 유주하므로 측면 증상인 偏頭痛, 耳聾, 胸脇痛, 寒熱往來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옆구리가 긴 少陽形은 소시호탕을 많이 응용한다.⁹

太陰形은 하강하는 氣勢의 형태이며, 실질적이고 타산적이며 현실적 감각이 뛰어나며 책임감있게 일을 하는 성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²³ 太陰形은 태음증의 증상(태음복통)이 잘 생기는데 食積과 外邪로 인해서 온다. 足太陰脾經으로 병이 유주하므로 脾臟病證이 많고 태음습토로 인해 몸이 무겁고 권태증이 나서 눕기를 좋아한다. 얼굴색이 누렇게 될 수도 있고 脾主四末하므로 수족무력이 올수도 있다.⁹ 또한 척추가 잘 생기고 팔다리가 쭉시고 아픈 몸살감기가 자주 온다.⁵

少陰形은 눈꼬리가 올라가고 코는 내려가서 발산하는 기세를 갖는다.⁹ 고집이 세기 때문에 생각한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화를 낸다. 생소한 사람들과는 친화력이 부족하여 잘 적응을 하지 못한다.⁵ 소음형은 발산하는 기세이므로 기가 제대로 운행하지 못해 아래는 차고 위는 더워서 아랫배가 차서 아랫배에 가스가 차고 불쾌한 증상을 자주 느끼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불편한 증상이 생긴다. 그리고 소음형 여자는 여자의 기본 속성인 수렴성이 부족해 불임의 가능성이 높다.⁹

태양인은 太陽形 50%, 少陽形 35.71%, 少陰形 14.29%, 太陰形 0%순으로 분포하였다. 태양인은 太陽形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이¹¹ 등의 논문에서 태양인의 다빈도 중요안면 특징에 나오는 '눈꼬리가 올

라가있다(눈매가 매섭다)'는 내용과 유사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태양형의 이상을 추구하고 현실성이 부족하며 상상력이 뛰어나고 예술방면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특징은 태양인의 성격과 비교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소양인은 少陽形 51.47%, 太陽形 29.41%, 太陰形, 14.71% 少陰形 4.41%순으로 분포하였다. 소양인은 少陽形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少陽形에서 少陽病의 증상과 측면 증상인 偏頭痛, 耳聾, 胸脇痛, 寒熱往來의 병증이 잘발생하는 것과, 소양인 脾受寒表寒病의 "張仲景所論 少陽病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或 往來寒熱之證 卽 少陽人……"에서 밝힌 소양인의 병증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태음인은 太陽形 37.04%, 少陽形 32.8%, 太陰形 11.64%, 少陰形 18.52%순으로 분포하였다. 태음인은 太陽形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四象診療保元』²⁰에서 태음인의 눈에 대해 '크고 눈꼬리가 위로 치올라 범상'이라 기술한 부분과 『四象方藥合編』²⁴에서 태음인의 코에 대하여 '콧구멍이 들리고 크다'로 기술한 부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태음인은 다른 체질과 비교해 볼 때 소음형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는데 소음형의 '느긋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고집이 세고 생소한 사람들과는 친화력이 부족하여 잘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성격의 특징은 태음인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소음인은 太陽形 45.79%, 少陽形 30.84%, 少陰形 12.15%, 太陰形 11.21% 순으로 분포하였다. 소음인은 태양형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태양형의 '예민하고 섬세하다'는 성격이 소음인의 성격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태양형이 '少氣하여 상승력이 부족할 때 補氣升陽의 치법을 사용한다.'는 내용은 소음인의 병증에 있어서 升陽益氣하는 치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태양인과 소음인에서 다른 체질과 비교해볼 때 태양형이 비교적 높게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태양형의 성격적인 특징인 '다른 사람에 비해 예민하고 섬세하며 감정의 변화가 다양하다.'는 내용은 태양인과 소음인의 성격특징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 태양인과 소음인사이의 체질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2) 사상인과 陽明·厥陰形-얼굴의 돌출여부로 구분

陽明形은 수렴성이 있어서 뒤편이 잘 끌어모으므로 육심이 많다. 그리고 의리가 있고 빈틈이 없으며 의심이 많다. 陽明形은 열이 많아 돌출하는 성질이 있으며 多氣多血하므로 힘이 좋고 추진력이 좋으며 끊기가 있다. 陽明形은 위열로 인해 내상질환이 많고 습열에 잘 상한다. 대부분 열이 많아 몸이 뜨겁고 땀이 많다.⁹

厥陰形은 육심이 적고 조용하고 나서지 않으며 웅크리는 성질이 있다. 모든 병리가 寒과 연관되어 추위를 몹시 타며 몸이 냉하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신증, 여성의 경우 불임이나 자연유산 등으로 고생하기 쉽다.⁹

태양인은 陽明形 82.35%, 厥陰形 17.65%순으로 분포하였고, 소양인은 陽明形 73.42%, 厥陰形 26.58%순으로 분포하였다. 태음인은 陽明形 55.87%, 厥陰形 44.13%순으로 분포하였으며, 소음인은 陽明形 71.07%, 厥陰形 28.93%순으로 분포하였다.

태양인 82.35%, 소양인 73.42%, 소음인 71.07%, 태음인 55.87%로 모든 체질에서 양명형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체질과 관련없이 일반적으로 얼굴의 형태를 보면 돌출되어 있는 타입이 함몰되어있는 타입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특징에 따라 陽明形이 厥陰形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체질(태양인, 소양인)이 음체질(태음인, 소음인)에 비해서 비교적 陽明形이 많으며 음체질(태음인, 소음인)이 양체질(태양인, 소양인)에 비해서 厥陰形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陽明形은 비교적 열이 많은 형이며 厥陰形은 비교적 몸이 찬 편이므로 이러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고¹³ 등의 연구에서 태음인이 비부위인 中顔부위가 함몰의 특징이 나타나고, 소음인의 얼굴형이 퇴축되어있는 특징이 있다는 내용과 소양인의 얼굴은 돌출되어 있는 경향이 많다는 연구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체질 속에서도 陽明形과 厥陰形이 모두 존재하고 또한 한 체질 속에서 열증과 한증이 다

발생할 수 있으니 추후에 사상인의 표리한열병증과 陽明形 厥陰形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430명을 대상으로 하여 환자용설문지를 통해 진단한 사상체질과 형상전문가에 의한 형상분류에 있어서의 분포의 특징을 살펴본다. 체질별 형상분류의 분포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체질적인 성정병리적인 특징과 형상분류에 따른 성격과 병리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추후에 체질처방을 투여하여 체질이 확진된 환자들에 대한 형상의학의 유형분류 연구와 사상체질별 표리한열병증에 따른 형상의학의 유형분류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V. 結 論

1. 사상인과 膽·膀胱體의 비교

사상체질에 따라 膽·膀胱體의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1$, $p < 0.05$)

소양인 63.29%, 소음인 55.37%, 태양인 52.94%로 膀胱體의 비율이 높았고, 태음인의 경우 62.91%로 膽體의 비율이 높았다.

2. 사상인과 精·神·氣·血科의 비교

사상체질에 따라 精·神·氣·血科의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66$, $p < 0.05$) 태음인 45.0%, 태양인 38.46%, 소음인 35.92%로 氣科의 비율이 높았고 소양인은 36.99%로 精科의 비율이 높았다.

3. 사상인과 太陽·少陽·太陰·少陰·陽明·厥陰形과의 비교

1) 사상인과 太陽·少陽·太陰·少陰形

사상체질과 太陽·少陽·太陰·少陰形 간의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246$, $p < 0.05$)

태양인 50%, 소음인 45.79%, 태음인 37.04%으로 太陽形의 비율이 높았고, 소양인은 51.47%로 少陽形의 비율이 높았다.

2) 사상인과 陽明·厥陰形

사상체질과 陽明·厥陰形간의 비율은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p=0.0025$, $p < 0.05$)

태양인 82.35%, 소양인 73.42%, 소음인 71.07%, 태음인 55.87%로 모든 체질에서 陽明形의 비율이 높았다.

이상으로 사상체질별 형상분류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이에 체질별로 형상분류에 있어서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추후 연구로 체질처방을 투여하여 체질이 확진된 환자들에 대한 연구 및 사상체질별 표리한열병증에 따른 형상의학의 유형분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VI. 感謝의 말씀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201010567).

VII. 參考文獻

1. Song IB, Koh BH, Kim JW, Park SS, Lee EJ, Song JM, et al.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st Edition. Seoul:Jipmoondang. 2002:131.(Korean)
2. Kang KH, Baek GG, Kim KC, Lee YT. Study on Hyungsang in Nei Ching.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2;16(3):424-434.(Korean)
3. Sul YK, Jeon SH, Kwon SD, Kim H, Kim JW, Lee EJ, et al. Importance analysis of questionnaire for doctors and questionnaire for patients. J Sasang Constitut Med. 2006;18(3):94-123.(Korean)
4. Jeon SH, Jeong SI, Kwon SD, Park SJ, Kim KK, Kim JW. A study on the diagnostic accuracy rate of the 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for doctors used in the on-line system.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3):82-93.(Korean)
5. Choi MH, Park WH. A study on the observation of patients under Xingxiang medicine.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Diagnostics. 2001; 5(2):262-282. (Korean)
6. Kang KH, Baek GG, Km KC, Lee YT. Study on the terms, 'Dam' and 'Bangwang'.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3;17(2):275-292. (Korean)
7. Kim JW, Kim KC, Lee YT, Lee IS, Kim KK, Chi GY. Study on diagnosis by facial shapes and signs as a disease-prediction data for a construction of the Ante-disease pattern diagno-therapeutic system-focusing on gall-bladder's versus bladder's body and masculine versus feminine shape-.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 2009;23(3):540-547. (Korean)
8. Kim JW, Jeon SH, Lee IS, Kim KK, Lee YT, Kim KC, et al. Study on the meaning of four subjects and four species as a disease-prediction data and diagnostic value on Ante-disease.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9;23(2):325-330. (Korean)
9. 백근기. 육경형:komsil. 의림. 1st Edition. 서울:의림사. 2004:32-39.
10. Hong SC, Koh BH, Song IB. A morphologic study of ear, eye, nose and mouth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 1998;10(2): 221-270. (Korean)
11. Lee JH, Kim YH, Hwang MW, Kim JY, Lee EJ, Song IB, et al. Survey study about Sasang's characteristics of face, voice, skin and pulse diagnosis.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126-143. (Korean)
12. Park EA, Choi IH, Kim NY, Yoon SJ, Kim SH, Shin MR. A study about facial general morpholog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3):58-69. (Korean)
13. Koh BH, Song IB, Cho YJ, Choi CS, Kim JW, Hong SC, et al. A morphologic study of head and face for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1996;8(1): 101-186. (Korean)
14. Hong SC, Lee SK, Song IB. A morphological study of upper face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1998;10(1):161-170. (Korean)
15. Mun SH, Song IB. The comparison between Hyeongsang Medicine spirit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Hyeongsang medicine spirit in Jeungchi Medicine. J Sasang Constitut Med. 1996;8(1):33-42. (Korean)
16. 정행규. 담 방광론:komsil. 의림. 1st Edition. 서울:의림사. 2004:53-56.
17. Lee YT, Choi BT, Choi YH, Baek GG. Study on the shapes of Jung-kwa, Gi-kwa, Sin-kwa, Hyul-kwa. Korean

-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5;19(5): 1181-1190. (Korean)
18. 조장수. 정기신혈과komsi. 의림. 1st Edition. 서울:의림사. 2004:70-74.
 19. 김달래譯. 동의수세보원보편(일명 보제원설). 1st Edition. 서울:대성의학사. 2002:1-24.
 20. 홍순용. 사상진료보원. 1st Edition. 서울:서원당. 2002:100-110.
 21. Lee YT, Kang YS. Study about Yukmigiwhangwon in the Point of Hyungsang Medicine.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 2006;20(5):1089-1101.(Korean)
 22. 허죽송 외. 사상의학. 1st Edition. 연변:연변대학출판사. 1998:32-35.
 23. Kim JW, Ok JA, Jeon SH, Kang KH, Suk HJ, Kim KK, et al. Perspective on Taeum type in Hyungsang Medicine.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9;23(3):521-527. (Korean)
 24. 권영식. 사상방약합편. 1st Edition. 서울:행림서원. 1973:37-42.